

이야기 카드 1

놀림을 들은 순간

쉬는 시간 복도에서 친구 둘이 승민이의 새 머리 모양을 보고 놀렸다. 얼굴이 확 달아오른 승민이는 같이 욕을 해 버렸고, 그 뒤로 셋은 말을 하지 않는다.



이야기 카드 2

딱 한 판만

다음 날 수행평가가 있는데, 나은이는 밤 10시에 '딱 한 판만' 게임을 켰다. 정신을 차려 보니 새벽 2시였고, 아침에 또 후회했다.



이야기 카드 3

보내고 나서 '아차'

모둠 단톡방에서 준서의 의견만 계속 묻혔다. 화가 난 준서는 센 말을 올렸다가 바로 후회했지만, 이미 모두가 읽은 뒤였다.